

국방부 반 강제 매입 사찰 땅 돌려 달라

완주 봉서사 주지 월해 스님, “옛 가람부지 재 매입하겠다”

전북 완주 태고종 봉서사(주지 월해)가 1979년 10·26 사태 후 계약하여 ‘공시지가 강제 매입’으로 국방부에 반강제적으로 수용 당한 사찰 토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해 나섰다.

이번에 봉서사가 국방부로부터 다시 매입하려는 옛 사찰 부지는 약 25만평으로 2km에 이르는 사찰 진입로를 포함해 일주문 터, 도솔암, 부도전 터, 남암 터, 동삼굴 터, 진목장 터, 진강국사 사적비 터 등이 포함돼 있다.

봉서사 주지 월해 스님은 “국방부는 경내지 25만 평을 당시 공시지가인 평당 113원에 반 강제적으로 매입했다”며 “현재 이 부지는 향토사단인 35사단 충경부대의 유격 훈련장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35사단이 전북 임실군으로의 이전계획이 확정됐으므로 이 부지는 원 소유주인 봉서사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때마다 지자체장 임후보자들은 봉서사 땅을 되찾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봉서사를 가려준 군 유격 훈련장을 가로질러야 한다. 그동안 부대의 훈련이라도 있는 날이면 불자들이 짊어 가기도 힘들 정도로 수행환경과 신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천년 고찰인 봉서사 부지를 되찾아 옛 가람을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봉서사는 태고종 총무원을 통해 국방부 10·26때 25만평 공시지가로 후보자들 선거때마다 약속, 답 없이 군부대 훈련시 수행 활동 지장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로 앞으로 사부대중의 의지를 담은 탄원서 제출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현재 토지 재매각의사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 부지를 재 매입하는 데는 공시지가로 약 7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봉서사는 이 사찰 토지를 재 매입해 진



봉서사가 국방부로부터 다시 매입하려는 옛 사찰부지는 약 25만평으로 2km에 이른다. 주지 월해 스님이 옛 사찰 부지를 둘러보며 설명하고 있다.

목대사의 효행 사상을 담은 효행 문화체험관을 건립해 진북대사의 효행사상을 지역 청소년들과 지역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봉서사는 신라 성덕왕 때 혜철선사가 창건한 사찰로 고려시대 보조 지눌, 나

웅 해근스님, 조선중기 진북대사가 주석한 사찰이다.

한국전쟁 당시 소실된 것을 1960년대 일부 복원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문화재로는 진북대사 부도(전북도지정문화재 제108호)가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중생 번뇌 위해 염불 수행법 제시”

민중위해 정토신앙 주창한 요세 스님 조명 세미나

고려 무신정권의 혼란 속에서 민중들의 삶을 위해 정토신앙을 주창했던 원효국사 요세 스님(1163-1245)의 삶을 재조명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전남 강진 백련사(주지 여연)는 목포대 호남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24일 강진 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제2회 백련결사 학술세미나 ‘원효국사의 재조명’을 개최했다.

행사를 주최한 여연 스님은 인사말에서 “백련사는 불교의 시대를 이끌던 8국사 스님들이 계셨던 곳으로, 국사스님들은 중생들과 불교가 위기에 빠질 때 이곳에서 결사를 시작하셨다”며 “이번 학술세미나는 조사스님들의 뜻을 오늘에 살피 중생들의 가슴에 희망이라는 다리를 놓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보선 스님은 축사를 통해 “바람 잘날 없는 우리시대에 결사는 우리를 지탱해주는 희망의 범등(法燈)이며, 혼돈의 시대를 살았던 국사들은 결사를 통해 불교계와 중생계를 정화했다”며 결사의미를 설명했다.

강연은 부산대 채상식 교수가 ‘원효국사 요세의 생애와 역사적 위상’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으며 서울대 김정희 교수가 ‘원효국사 요세와 백련결사 정토신앙의 재조명’을 주제로 발표했다.

채상식 교수는 “당시 많은 농민층들의 유리현상과 병행하여 나타난 지배세력에 대한 농민·천민 등의 항쟁은 단순한 민란의 차원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변의 양상을 주도한 것으로, 요세 스님이 신앙결사를 표방한 것은 당시 보수적인 불교계를 대단한 충격이었다”고 말하며, “요세 스님의 법학교관에 바탕한 참회행과



채상식 부산대 교수는 “요세 스님은 민중들에게 참회행과 미타정토신앙을 실천방향으로 제시해준 것은 신앙적 활로를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타정토신앙을 실천방향으로 제시한 것은 당시 불교계에 대한 자각과 반성을 촉구한 것일 뿐 아니라 피지배층 대상으로 하여 신앙적인 활로를 모색한 것이었으며, 정토신앙이 민중 속에 깊이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희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요세 스님은 중생과 부처가 모두 자신의 마음에 근거하며,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함으로써, 중생들의 다양한 번뇌의 치료법으로 염불, 참회, 독송과 같은 다양한 수행법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지연 오지연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전임연구원의 ‘원효국사 요세와 백련결사 참회수행의 재조명’, 엄기표 단국대 교수의 ‘백련사 석조 유물의 종합적 검토를 통한 원효국사 부도와 석비의 원형 추론’ 발표가 이어졌다.

오지연 전임연구원은 “보현도량은 참회나 예불, 염불 등의 행법으로 그 바탕을 둔 법화경을 통해 정법수호의 결연한 의지로 수행하는 보살행을 강조했다”고 정의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복지·문화체험 통한 고창공동체 실현할 것”

고창군사회복지시설, 개관 5주년

선운사 복지재단(대표 범만)이 위탁 운영하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관장 도완)이 개관 다섯 돌을 맞았다.

‘복된 만남 아름다운 인연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2007년 개관한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은 개관 5주년을 맞아 11월 29일 회원어르신들과 지역 주민을 초청해 개관 기념식과 축하공연,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 상임이사 범려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서관열 부군수, 박래균 군 의장, 김춘진 국회의원, 임동규 도의원 등 내빈과 5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후원 전달식, 우수 직원 표창과 2부 어르신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도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처음 가졌던 설렘과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겠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이 되겠다”고 말했다.

범만 스님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보살의 길을 걷는 데에만 찾지 않겠다”며 “보은염 만드는 법을 지역민들에게 알려준



고창군사회복지시설은 개관 5주년을 맞아 11월 29일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진우 스님(백양사 주지·사진 맨왼쪽), 종삼 스님(화엄사 주지·왼쪽에서 두번째), 김춘진 국회의원(오른쪽에서 다섯번째) 등 내빈 500여 명이 참석했다.

단 스님을 비롯한 역대 조사스님들의 유지를 이어 받아 복지, 문화체험을 통한 고창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복지사업 증진을 위해 애써준 우수 직원 김용숙(49), 김규태(42)씨에 대한 시상과 영광원자력본부, 트로트 가수 미소라의 후원 전달식이 이어졌다.

문화교육 프로그램 발표회는 실버야단, 벨리댄스, 난타 등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다채로운 시간으로 진행됐다.

그밖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한지공예, 서예, 반딧불교실, 문예교실, 동화구연 전시회와 트로트 가수 미소라의 무료축하공연이 열렸다.

고창종합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및 노인복지센터와 푸드마켓 등 4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 회원은 4000여 명이며 하루 500여 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국립광주박물관, 관람객 50만 명 돌파

“세계 100대 박물관 이름 올릴 것”

최근 중국의 1급 불교문화재가 포함된 ‘절강성 보물’ 전과 ‘외규장각 의궤’ 특별 전시를 개최한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1978년 개관된 이래 34년 만인 올해 1년 관람객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 국립박물관 중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에 이어 세 번째다.

박물관 분야의 국제 권위지인 아트 뉴스페이퍼(The Art Newspaper)는 “세계 100대 박물관”을 연간 방문객 수 50만 명 이상에서 선정 하는데 광주박물관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외규장각 의궤’와 중국 ‘절강성의 보물’, ‘강진전’ 등과 같은 타 지역에서 보기 힘든 굵직한 특별 전시를 개최했다. 국제교류 전시인 절강성의 보물전은 9월 25일 개막하여 11월 25일까지 10만여 명이 다녀감으로써 막을 내렸다. 절강성박물관의 대표유물 200점을 엄선했으며 중국의 1급 유물 40점이 포함되어 국내 최대 규모의 중국 문물전으로 주목받은 전시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연 개발 경쟁 대상으로 생각 말아야”

유정길 前 대표 증심사서 강연

광주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불교환경 강좌가 개최됐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연광)는 11월 28일 ‘무등(無等)에서 길을 묻다-33선지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명사초청법회에 유정길 前 에코붓다 대표를 초청해 불교환경에 대한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에서 유정길 前 대표는 “불교는 영리적 가치관을 통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인간과 자연이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밝혀왔다”며, “환경은 깨끗한 상태를 보존하는데 멈추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간이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직도 자



무등산 증심사에서 11월 28일 개최된 명사초청법회에 유정길 前 에코붓다 대표가 초청돼 불교환경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연을 개발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강조했다.

증심사 명사초청법회는 33분의 한국불교의 선지식을 초대해, 무등산을 찾는 불자들과 일반인들에게 불교적 실천의 아름다움과 오늘날 인류 문제를 불교의 지혜로 해결하고자 하는 강의로, 지난 2011년 3월에 시작 2013년까지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출가익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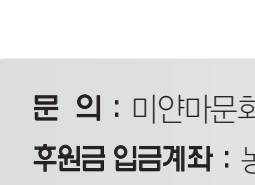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이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